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⑫ 한국선법의 정착



▶ 한줄 요약
지눌은 한국적인 선법의 정착을 통하여 토착화를 구축해준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눌, 한국적 선법 정착·토착화 이뤄

1. 지눌의 위상

보조 지눌(普照 知訥, 1158~1210)은 고려 중기에 출현한 인물로 다방면에 걸쳐서 한국의 선종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소위 한국선의 토착화 및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첫째는 새로운 선수행법을 도입하였다. 둘째는 본격적으로 선록에 대한 저술을 남겼다. 셋째는 선과 교의 융합을 보여주었다. 넷째는 분명하게 전등의 법맥을 계승시켰다. 다섯째는 청정한 승풍의 기율을 진작시켰다.

한국선이 수입되던 8세기 말부터 지눌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던 12세기 후반까지 400여 년 동안의 역사는 한국선법의 시기로 보자면 수입을 통한 태동의 시기와 그로부터 이후에 한국에 선법을 정착하기 위한 모색의 시기에 해당한다. 그것은 주지하듯이 구산문을 비롯한 여러 산문의 개창과 소멸 그리고 당말 및 오대에 형성된 선종오가의 수입과 그 전개 등으로 대표된다. 이 시기에는 선사상사적인 측면으로 보아 독창적인 사상의 정립을 보여주기보다는 선리(禪理)의 전승과 소개 내지 보급 그리고 법맥의 계승과 정착에 따라 선종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고 시도했던 점이 엿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름대로 산문의 개창을 통한 역사를 이루어오기도 했지만, 개창자의 사상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정립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의 모습으로 보였다. 특히 선종오가가 모두 전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적인 특색을 보여주었던 것으로는 순지의 원상법과 화엄교학의 응용을 들 수가 있지만, 그것도 이미 중국의 선종사 곧 위앙종(潙仰宗)에서 연원하여 전개되었던 것을 보급하여 전개시킨 측면이 강했다. 조동종풍(曹洞宗風)의 전승과 전개의 경우에도 선리의 측면에서 보면 충실하게 전승했다는 평가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독특하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던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미흡하였다.

2. 한국적인 선법의 토착화를 구축하다

이러한 시기에 출현한 지눌은 그동안 움츠렸던 팔다리를 펼치기라도 하듯이 여러 측면에서 두드러진 족적을 보여주었다. 첫째는 북송 말기 및 남송 초기에 걸쳐 확립되었던 송대 간화선(看話禪)의 수행법을 도입하고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저술도 남겼다. 특히 대혜 종고(大慧 宗杲, 1089~1163)의 간화선의 수행법에 대하여 무자화두의 참구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무자화두(無字話頭)의 십종병(十種病)을 정립하였다. 그것은 대혜의 무자화두 참구법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10가지 항목을 내세워 구체적으로 확립한 것은 지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후에 진각 혜심(眞覺 慧諶, 1178~1234)에게 전승되어 더욱더 강조되고 세련되게 전개되었지만, 지눌이 보여준 새로운 선수행법에 대한 안목은 이후로 한국의 선종사에 있어서 중요한 수행문화의 서막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눌 자신은 정작 간경(看經)을 통한 수행법으로 오도하였으면서도 후학들에게 지도한 수행법은 간화선의 수행법을 비롯하여 기타 염불(念佛)과 참회(懺悔)와 주력(呪力) 등에 걸쳐 다양한 수행법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은 조선시대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1604)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수행풍토는 지눌로부터 보다 분명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한국선에서 수행의 성격을 보편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초석을 놓는데 큰 역할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눌은 한국의 선종사에서 처음으로 선문헌을 본격적으로 저술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지눌 이전의 수많은 선자(禪者)들의 역할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어록 내지 저술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지눌이 남겨 놓은 여러 가지 저술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까닭에 지눌 이전에 활동한 선자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몇몇 비문(碑文)과 중국의 찬술문헌 등에 단편적으로 보이는 대목을 통해서 엿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눌의 저술이 다방면에 걸쳐 출현함으로써 선법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불교교학의 사상과 계율과 불교문화의 측면에서도 보다 분명하게 한걸음 진척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10여 종이 넘는 지눌의 저술에는 법어(法語)와 가송(歌頌) 등을 비롯한 납자들의 마음자세에 대한 선종관련 문헌뿐만 아니라,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과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 등 승가의 기율을 다잡으려는 계율과 관련된 것,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을 비롯한 화엄의 교학과 관련된 것,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등 중국에서 찬술된 저술에 대한 주석의 성격을 지닌 것,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 보이는 간화선의 수행법을 위한 것, 〈염불요문(念佛要門)〉에 보이는 염불과 관련한 것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지눌이 내놓은 이들 저술들은 이후 한국의 선종사에서 선법의 방향 내지 선과 교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셋째, 지눌 자신은 선자였으면서도 교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일찍이 중국 조사선(祖師禪)의 전통적인 면모를 계승하였다. 조사선의 원류로 간주되고 있는 보리 달마(菩提 達磨)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달마는 일체중생이 부처와 동일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경전의 가르침을 의거하여 확신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었다. 그것이 곧 자교오종(藉敎悟宗)으로서 경전에 의지하여 선의 종지를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이 존속되어 오고 있다. 바로 지눌이 이와 같은 조사선풍의 정신을 충실하게 계승했다는 증좌로는 다양한 교학에 대한 지눌 자신의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하여 남겨



보조 지눌 진영.

한국선의 토착화 · 전개에 중요역할
본격적으로 선록에 대한 저술 남겨
선교 융합 분명한 전등 법맥 계승해
청정한 승풍의 기율 진작 위해 노력

둔 저술의 종류와 성격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눌은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의 영향을 강하게 수용하였다. 가령 종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과 교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교융합 내지 선교겸수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점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가장 농후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은 교학을 바탕으로 한 선리일 뿐만 아니라 지눌에게 있어서 선리에 대한 명백한 이해와 근거로 기능할 수가 있었다. 지눌이 보여준 선과 교학의 상호관계는 일찍이 신라 말기에 선법의 수입시기에 보여주었던 것으로 무모한 주장이기도 했던 선법우월주의에 대한 태도를 극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에 대하여 균형이 잡힌 이해와 실천의 방향을 일러준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지눌의 입장도 선법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것은 수선사(修禪社) 계통뿐만 아니라 후대의 선법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개되었던 까닭에 한국선법만의 특징으로 굳어진 면모이기도 하다. 한국선법의 이러한 전통은 이후로 고려를 통하여 조선시대 나아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

넷째는 기존 사굴산문(闍崛山門)의 법맥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눌의 경우에도 이전의 사승(嗣承)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을 안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눌로부터 전개된 이후의 법맥의 전승은 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가령 조선 후기에 출현한 〈해동불조원류(海東佛祖源流)〉 및 〈동사열전(東史列傳)〉 등을 비롯한 전등사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헌은 물론이고, 이후 20세기 초에 출현한 〈조계고승전(曹溪高僧傳)〉에 이르기까지 지눌의 사승관계는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눌 이전의 한국선법에서는 일찍이 단절되어 구체적인 면모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지만, 법맥에 대한 강한 긍지심과 문중의 종풍을 수호하려는 의식은 지눌로부터 분명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고려 후기에는 전등사서에 대한 관심의 증폭으로 나타났다. 가령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 그러하고, 조선 초기에 보이는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대한 관심을 비롯하여 〈통록촬요(通錄撮要)〉의 개판 등은 지눌의 법맥의식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된 전등의식의 발로로부터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조선시대의 열악한 불교계의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기라도 하듯이 중국의 선종사에 비하여 대단히 단조로운 법맥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노정시켜준 것이었다. 가령 임제종 계통의 법맥 위주로 전개되어 온 점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와중에도 사승관계에 대한 정통과 방계에 대한 논쟁이 청허 휴정 이후로 다시 불거지면서 오늘에 이르도록 한국의 선종사를 점철해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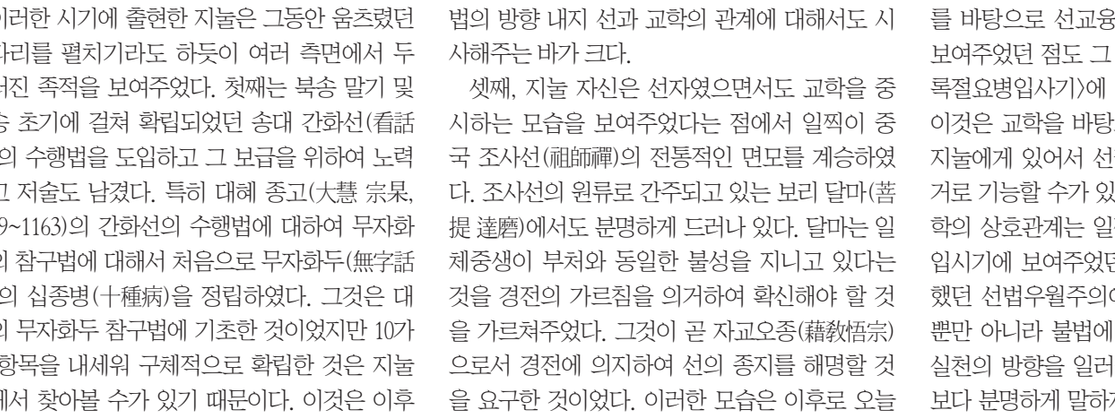
다섯째, 지눌은 국가적인 난세에 처하여 살아가면서 시대자각이 투철한 선자였다. 무인정권으로 흘러가는 시기였던 까닭이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승풍이 타락해가던 모습에 대하여 좌시할 수 없었던 지눌은 새로운 결사운동을 보여줌으로써 한국불교의 1000여 년에 걸친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승풍의 진작을 위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권수정혜결사문〉은 그 일환으로 출현한 것이었다. 지눌은 상구보리(上求菩提)의 기치도 중요했지만 하화중생(下化衆生)의 활동과 더불어 승가 자체가 청정한 모습을 구현하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자각하였다. 이런 점은 지눌이 선자의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즉시대적인 자각을 앞세움으로써 선종계 나아가서 불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신앙을 비롯한 수행의 결사운동은 보다 넓은 측면에서 전개되는 단초의 촉발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시대를 계도하고 사회를 정화해야 할 출가자의 본분사에 대한 자각이었고, 그 동안 세속화되어가던 승풍을 회복시키는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이기도 하였다.

3. 의의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 걸쳐서 한국선의 역사에서 한국적인 선법의 전개를 위한 인물로서 지눌이 보여준 커다란 활동은 중세 한국 선법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볼 수가 없었던 시도였고 전개였으며 결과로서 한국적인 선법의 큰 흐름을 주도하였다. 중국의 선종사에서 조계 혜능의 역할은 소위 중국적인 선법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국선의 토착화를 성취한 인물로 평가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선의 역사에서 400여 년에 걸친 모색시기를 보내고 새로운 한국선법의 전개를 위한 토양을 마련해준 인물로 지눌의 역할을 언급할 수가 있다. 그것은 지눌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한국선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선의 자각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중국으로 유학하여 자발적인 선법을 도입해온 경우가 그러하고, 선종의 수행법에 다양한 신앙의 수행법을 융합하여 발전시킨 경우가 그러하며, 법맥의 전승에 따른 강한 문중의식의 형성 등이 그러하고, 본격적인 어록의 편찬이 출현했던 것과 기타가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지눌은 한국적인 선법의 정착을 통하여 토착화를 구축해준 인물로 평가할 수가 있다.

〈동국대 HK교수〉

국내최초·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왜! 스타급 가수들의
전용 마이크가 일억이 넘을까요?....
그것은 저급한 시설에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가 매우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형편! 마이크 하나만 바꿈므로 소리를 몇배의 성능으로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58만원

시중에 없음
마이크만 구입 가능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58만원